

병원감염의 발생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

박은숙 /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병원감염의 정의

병원감염은 입원 당시에 잠복상태가 아니었고, 감염상태가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감염은 외부로부터 감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환자의 몸에 정상적으로 상재하고 있던 균주들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실제 현대 의학의 수준으로는 아무리 병원감염관리를 완벽하게 한다해도 100% 예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감염 발생 현황

병원감염의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는 전체 입원환자 혹은 퇴원환자 100명당 몇 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국가적인 규모로 수행된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퇴원환자 100명 당 2.22~5.7%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병상의 규모가 클수록, 교육병원일수록 많아지며, 일반병동보다는 중환자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종합병원이나 교육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구성이 높고, 각종 침습적 시술이 빈번한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일반병동보다 중환자실에서 더 철저한 감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감염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감염은 요로감염, 폐렴, 수술부위의 감염, 혈류감염 등으로 전체 병원감염의 약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적인 수준의 병원감염률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1996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실시한 전국 15개의 종합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전향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퇴원환자 100명당 3.7건의 수준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구해진 병원감염률은 환자들의 특성이나 의료환경의 특성 및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간, 병원간 발생률을 비교하기에는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병원감염률의 산출은 병원간, 국가간 병원감

염률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내, 병원내, 진료과내, 부위별 병원감염에서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때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병원감염으로 인한 문제

병원감염은 입원기간의 연장 과 추가 진료 및 투약 등으로 인하여 환자, 병원, 국가에 모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진료의 목적과는 다른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환자와 병원 측의 비용손실

문제는 의료비 지불체계에 따라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병원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감염이 발생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재원일수를 늘려 병상회전율을 감소 시키므로 병원 경영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은 의료비지불 체계가 포괄수가제가 되면 병원 측에 나타나는 비용손실은 더 심각해진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병원감염으로 인한 각종 비용의 손실이 병원 측의 부담으로 남아있게 되며, 병원감염을 합병증으로 인정하여 재분류되는 경우라도 보상되는 비용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병원감염의 발생은 병원 경영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포괄수가제 실시 후 병원감염으로 인한 병원측의 비용손실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원감염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의 약 5%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95%는 병원 측의 손실로 남는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감염은 이로 인한 직접적 재정적 손실외에 항균제 내성균의 증가, 병원이미지의 손상, 법적인 소송의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환자나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번 호에는 병원감염이 무엇이며 발생현황이 어느 정도이며, 병원감염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병원감염 감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이어진다. >

